

광주서尹대통령 국정 뒷받침 보수단체 출범 '주목'

'공정과상식 광주전남 포럼' 창립
전우진 전남대학교수 수석대표 맡아
전주혜 국힘 원내대변인 등 참석
"지역 현안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뒷받침할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탓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지역정가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역대 보수 후보 중 광주 최대 득표율(12.72%)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에 변화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 포럼'(포럼)은 지난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8층 강



전우진 수석대표, 주기환 상임고문 등이 지난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8층 강당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 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포럼 제공

당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창립대회에는 전우진 수석대표, 주기환 상임고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용임 광주시의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병민·장예찬 최고위

원은 축하 영상을 통해 포럼 출범을 환영하며 "여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내 고향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포럼 수석대표는 전우진 전남대 교수로, 노태우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

낸 전석홍씨의 아들이다.

전 수석대표는 포럼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광주에서 태어나 8살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광주·전남 사람들은 결집력이 좋았다"며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착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어 "건전한 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내 균형이 20%만 돼도 광주·전남 인재들이 나온다"며 "쉽게 바뀌지 않는 정치 상황을 보고 누군가 깃발을 꽂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는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지역민이 잘 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책임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하되 모두 제약 없이 참여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시대'에 발맞춰 단체 카카오톡방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예술분과 △청년분과 △인재영입분과 △여성분과 △사회복지분과 △정책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나눠 전문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 활용 방안

도 기대된다.

전 수석대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정치 구호가 아닌 인류의 보편 가치"라며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 사회가 의식적으로 편향된 가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포럼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갖고 지역 인재들이 스펙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보수를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한 데다 여당 인사들도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전 수석대표는 "포럼이 여당과 정부에 지역 정책이나 현안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포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인재가 많이 등용됐으면 좋겠다. 단기간이 아닌 광주에서 오래가는 포럼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DJ 정신 계승'...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

내년 탄생 100주년... 철학 구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과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철학·사상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이 18일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창립대회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 임재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이윤득 전 한국노총위원장,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재단 부이사장과 3남인 김홍걸 국회의원, 발기인 등 3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최경주 재단 이사(광주·전남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집행위원장)는 "내년 1월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철학과 사상, 지도이념을 구현하고 경제 위기, 남북 평화 위기 등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재단이 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노갑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고 현실정치에서 실천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광주·전남에서 재단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한 우리 고장에 자부심을 느끼고 대통령 선양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은 내년 1월6일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과 아카데미, 연구·봉사활동, 역사 탐방, 국제연대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내빈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주, '혁신위' 위원 선임 등 조직구성 착수

10명 안팎...계파 안배 '시험대' 당원권 강화 논의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김은경 한 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당 전면 쇄신을 위한 혁신기구 수장으로 인선하고, 인적 구성과 과제 설정 등 구체적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 혁신위원장은 조만간 혁신위원 선임 등 조직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혁신기구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절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3~4명가량은 현역 의원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혁신위 구성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현역 의원을 포함하는 조직

구성에서 계파를 안배하고, 혁신 내용과 혁신위 권한을 설정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자리를 놓고 계파 간 자리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혁신기구에서 논의될 의제들이 내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구성한 '감상론 혁신위'는 공천 시스템을 정비한 바 있다.

아울러 대의원제 폐지 등 당원권 강화 논의도 계파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의제 가운데 하나다. 혁신기구 수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진영과 비영 간 대결 구도가 혁신위원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위원장 인선 당시 비영계는 김태일 전 장관대 총장을 밀었는데, 당 지도부가 이

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혁신기구 구성은 김 교수의 정무 감각과 결단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혁신위원 인선 권한도 김 교수에게 넘겨졌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로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는 혁신기구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두 달 여백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혁신기구에 현역 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첫 인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오늘·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최소 30석 의원정수 감축" 이재명 "경제위기, 민생추경 편성"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의원정수 축소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고 정책 수정·폐기, 민생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 등을 촉구한다.

이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수정·폐기, 추경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 미래 산업 구축을 위한 투자 등 민생 중심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도 역설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기본사회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불평등·양극화 사회가 아닌, 누구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등 3대 국회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금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인 30명을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정해 향후 야당과 공직선거법 개편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부산엑스포 유치'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PT) 연설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20일 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 PT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간다"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사로 등장할 윤 대통령은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가수 싸이 외에 학계와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 앞 순서로 현장 발표에 나선다.

서울=김선욱 기자